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예배 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중고등부는 5월12일(토) 뉴욕/뉴저지 지역 교회들의 배구대회에 참가합니다.
- 5월13일(주, 어머니날)은 자녀들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Edwin Kim 전도사가 말씀 전합니다.
- 담임목사 동정
- 담임목사는 5월7일(월)부터 17일(목)까지 한국 방문합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분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분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분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4월 안내: 하영미 집사 / 5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기세학 집사 (시 98)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임수연 집사

다음 주 친교: 하영미 집사, 김경화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Edwin Kim 전도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 1:1-11** -----인도자
 설교(Sermon)-----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 323장 (통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22:25-31 ----- 홍성훈 집사
 찬양(Choir) ----- “”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 1:1-11**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 516장 (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헛되지 않은 수고(3): 사랑 (요 21:15-22)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기에,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기에 주님을 믿고 수고한 것과 소망으로 인내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그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을 의미있게 합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신 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우리도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니다(요일 4:10).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베드로의 사랑을 진짜라고 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최선을 보이고, 최선의 모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좋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뿐이었다면 베드로의 사랑은 헛됩니다. 세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배신했느냐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랑을 알고 진짜로 여긴다는,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책망보다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치유의 아픔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한 것이 틀림없었지만 주님은 배신의 댓가를 요구하지 않고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손해입니다. 용서의 끝은 죽음입니다. 대신 죽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그런 용서로 베드로를 대하셨기에 베드로의 사랑을 진짜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리사랑으로 용서하심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사랑이 진짜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정성스럽고 열정적인 사랑도 헛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사랑은 최선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형제도 최선으로 봐주고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이웃이나 따지지 않고 이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손해도 보고 헛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라 하신 주님 때문에 헛되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맡기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합하다고 봐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십니다(행 13:21-22).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소중한 일을 맡길만큼 마음이 통한다고, 진짜 사랑을 가졌다고 봐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있고 순전하고 지혜로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공해도 헛됩니다.

베드로는 결코 너무 큰 일이라고, 배신한 자기는 자격없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따르라”는 초청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다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같은 베드로이지만,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최선으로 봐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의롭다 하시려고 자기가 죽어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은 이제 주님의 사랑에 매인 인생이었습니다. 실제 사슬에 묶여 순교당했지만, 진짜 강력한 사슬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라 고귀한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감히 주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웃을 사랑합니다.